



# 교재 후기

2016 문법의 끝으로 공부한

## ‘2016 수능 1등급 검토진’의 교재 후기

황 현 성 | 건양대학교 의학과 2016학번

안녕하세요. 16학년도에 『문법의 끝』으로 문법 공부를 끝낸 학생입니다. 저는 2년 동안 대학 생활을 하면서 수능 국어에 대한 대부분의 개념들을 잊고 작년에 다시 수능 준비를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인 2010~2012 수능 때는 문법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난 지금 수능 국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문법이 많이 중요해졌죠. 학창 시절, 문법이라면 죽도록 싫고 재미도 없었습니다. 개념 하나 하나가 필연적인 이유가 없이 단순 지식으로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제가 서점에서 우연히 『문법의 끝』이라는 책을 접했습니다. 상위권들 중,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유현주 선생님의 책인 점도 있었지만 독학을 하는 저로서는 독학으로도 충분히 공부하기 쉬운 구조로 되어있는 이 책이 저한테 가장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원 시작 전 큰 틀을 제시함으로써 숲을 볼 수 있게 만든 구조, 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선생님의 친절한 주석을 통해 과외 받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학원 다닐 형편이 안 되었던 저에게는 친절한 주석이 너무나도 도움이 되었답니다. 또한 단원 마무리 부분에 있는 최근 10여년 치의 기출 문제를 통해 배웠던 개념을 복습하는 부분은 학습의 화룡점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문법의 끝』을 7회독을 했습니다. 7회독과 함께 저만의 문법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고 결국 수능 날 문법 문제가 긴장 탓에 다소 난해했었지만 일 년간 열심히 학습했던 자신을 믿고 문제를 풀어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문법의 끝』을 7회독 하면서 3회독까지는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문제를 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후에 4회독, 5회독 하면서 중요한 개념과 문제 풀 때 헷갈리는 문제들과 선택지를 정리하면서 저만의 문법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으며 1년 간 치르는 수많은 사설모의고사와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오답과 부족한 개념들을 6회독에서 채우면서 완전한 문법 단권화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수능 바로 직전 달인 10월 달에 문법을 마지막으로 총정리 하면서 7회독을 완성했습니다.

비록 저는 7회독 밖에 못했지만 수험생 여러분은 10회독 정도 하시면 확실한 문법 지식과 함께 수능 날 문법 영역은 다 맞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문법의 끝』과 함께 1년 열심히 준비하셔서 수능의 성패를 가르는 1교시 국어 영역을 안정적으로 잡고 가셨으면 합니다.

17 수능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 김 태 은 |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2016학번

몇 번의 수능을 치렀지만, 매 번 수능 때마다 두려웠던 시간이 국어영역이었습니다. 한 번도 수능 시험장에서 페이스 조절을 해가며 풀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학원 선생님께서 문법 영역에서 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늘 강조는 하였지만, 매번 변별용 문제로 나오던 비문학이 제 골칫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 문제가 거기서 거기지 라는 생각에 방심했었던 것도 있고, 범위가 무한하단 생각에 따로 공부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10장에서 20장 사이로 이루어진 짧은 인강을 보는 것으로 준비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5수능에서 비문학도 아닌 문법에서 제일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온전히 1년간 시간을 투자해 공부했던 것과 달리 16년도의 저는 반수생이었기에 약점 보완만 해가지고 생각하고, 국어 영역에서 제일 큰 약점은 문법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년과 같이 짧은 인강으로 수능 현장에서 잘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었고, 보다 더 자세하게 개념을 쌓고 싶었습니다. 인터넷에서 교재를 찾던 중 발견한 것이 '문법의 끝'이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요점만 골라서 설명하는 책이나 인강과 달리 큰 가지부터 작은 가지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준다는 점입니다. 헛갈리는 부분 또한 '열공 tip'에서 잡아주어 독학하는데 전혀 손색이 없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좋았던 점은 '문법 개념 구조도'입니다. 첫 부분에 나오는 문법 개념 구조도를 통하여 머릿속에 큰 갈래를 잡고 난 후에 공부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능 문제 또한 어떤 갈래에 속한 문제인지 알고 나면 '보기'에 나오는 개념어 또한 수월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례들이 정말 친절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례와 개념을 연결해보면서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나 확인해가며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가면서 책의 내용을 숙지해나갔습니다. 각 장 첫 페이지에 나오는 갈래를 A4용지에 크게 적고 나서 책을 한 번 대강 훑으며 정의를 간략하게 적었고 그 뒤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각 갈래에서 또 갈라지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A4용지가 딱 차면 스스로 만들어 보고, 예시 기억나는 거 하나씩 적어보고 하면서 차곡차곡 쌓아나갔습니다.

언어 영역 세대인 저에게는 따로 문법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매우 낯설고, 어렵기도 정말 어려웠지만 17년도 수험생 여러분은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책을 처음 접할 때 책 두께에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책 한 권으로 더 이상 문법 영역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마지막으로 올 해 비문학이 너무 어려워 시험 칠 때 힘들었지만 문법 문제만큼은 수월하게 해준 '문법의 끝' 책 정말 감사합니다.

## 국 진 희 | 가천대학교 한의예과 2016학번

201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던 때에는 문법은 공부하지 않고 보기를 보고 푸는 문제라고 여겼기에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법 문제를 틀렸고, 반수를 시작하면서 문법만큼은 확실히 잡고 싶었습니다.

저와 같은 분이 있다면, 이 책은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은 목차 부분이 단순한 목차가 아니라 문법의 개념도처럼 구성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이 덕분에 제가 왜 15학년도 수능에서 문법을 틀렸는지 확실히 알게 되었고,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국어 문법의 개념이 마인드맵으로 정리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두음 법칙, 사잇소리 현상과 같은 머릿속에 똥똥 떠다니던 개념들이 음운의 변동 중 '교체'에 해당한다는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

이 교재를 꼼꼼히 읽고, 교재에 수록된 기출 문제를 풀 때 적용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문법 능력이 크게 향상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부를 하실 때 개념 옆에 표시되어있는 중요도를 체크하시면 중요한 개념을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의 끝'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2017년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 김 동 휘 | 서울대 사회과학대학 2016학번

2016 수능을 준비하며 국어 문법 부분 공부를 문법의 끝만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2015 수능 국어B형 88점 2등급에서 2016 수능 국어B형 100점 1등급으로 점수 상승을 가능하게 해준 1등 공신이 문법의 끝 교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앞부분인 문법영역은 뒤의 독서와 문학영역을 풀어나갈 때의 정신을 좌지우지합니다. 이 책을 통한 문법 공부를 통해 자신감이 생긴 저는 올해 수능국어에서 흔들리지 않고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모든 단원을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 의미론 화용론으로 분류해놓은 것이 머릿속의 문법 지식을 체계화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음운변동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해놓은 부분이 아직도 참 인상적이네요!

예를 들어 '굳이'를 발음할 때 [구디]로 발음하는 것보다 [구기]로 발음하는 것이 혀의 이동이 적어 (ㄱ발음과 ㅣ 발음의 위치가 같아)편리하고, 'ㄱ'이 소리 나는 연구개에 가까운 구개음인 'ㄷ'으로 소리 내는 것이라는 효율적이기에 구개음화 현상이 나타난다는 설명을 통해 언어생활에서 발음의 효율성을 위해 일어나는 다른 많은 현상들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설명들을 보면서 스스로 여러 가지 언어 현상들을 해석, 분석하는 능력이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구개음화 현상을 이해하고 나서 김치의 이름이 덩치 짐치 짐치 에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이유를 혼자서 파악 할 수 있게까지 되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가 각 단원에 맞게 수록되어 있어서 지식을 활용하는 훈련도 되었습니다.

이 책을 잘 활용하여 좋은 점수를 받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 이 책을 추천 합니다.

## 김 지 혜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2016학번

저는 올해 삼수를 했습니다. 현역 때부터 가장 못했던 과목이 국어였기 때문에 국어공부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지만 14수능이었던 현역 때는 2등급, 15수능이었던 재수 때는 3등급이 나왔습니다. 국어 때문에 삼수를 하며 제가 한 결심은 '양이 아닌 질로 승부하자!'였습니다. 문법에 한해 말하자면 요즘처럼 어려운 국어시험에서는, 문법파트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수능을 보기 전까지 사실 전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습다.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왔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더군다나 14 수능에서 문법 파트를 다 맞은 경험은 저로 하여금 '문법은 거저 주는 파트다.' 하는 착각을 하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 하루에 5문제씩 푸는 것과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 연계교재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다. 그러나 대망의 15 수능! 평소 풀어오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난 저는 문법 파트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문제유형에 당황했고, 정확한 개념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의 난이도 상승이 저에게 매우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 결과 문법파트에서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써버리고 시험자체를 말아먹었죠... 그래서 삼수를 시작하며 문법을 확실히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법의 끝'이라는 책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이 얼마나 행운이었는데 몰라요!

이 책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은 잘 범주화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범주화는 우리로 하여금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게 해주는 물론 더 잘 기억할 수 있게 해줍니다. 책 맨 앞을 보면 문법 개념 구조도가 있는데요, 전 이 부분을 보고 책을 사기로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구조도를 보면 전체 문법내용이 범주에 따라 정리되어 있어 공부하는 중에 수시로 보면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뭔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감도 잡을 수 있고, 또 배운 내용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다가 헛갈리거나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 바로 그 페이지를 찾아 공부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념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되어있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요. 조금 헛갈리는 부분이 생긴다 싶을 때!! 책 옆을 보세요. 선생님의 열공 팀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열공 팀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강조 되어있기도 하구요. 추가적인 설명이 되어있기도 합니다! 덧붙여 선생님의 응원의 메시지!!! 힘든 삼수 생활 중에 선생님이 남겨주신 응원의 메시지는 참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는 개념만 정리되어있을 뿐만이 아니라, 기출문제도 수록되어있습니다. 개념을 정리하고 그에 관련된 문제를 푸니 개념을 적용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문법의 끝으로 문법 공부를 한 결과, 16수능에서는 문법파트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문법에서 전혀 틀리지 않은 덕분에 처음으로 수능에서 국어가 1등급이 나왔고요.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 원 영 호 | 고려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2016학번

저는 이번이 세 번째로 응시한 수능입니다. 작년에 국어를 3등급을 맞고 나서, 제 문제점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14, 15 수능 때 제게 가장 난해했던 부분은 문법이었습니다. [보기]가 주어진다 해도 ‘처음 보는 것은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때려 맞추는 식으로 풀게 되고 심지어 [보기]가 주어지지 않은 문제를 시험장에서 만났을 때에는 ‘아. 이거 못 풀면 어찌지’ 하는 마음에 문제를 읽기가 무서웠습니다. 근거 없이 감으로 문제를 풀게 되니 한 두문제로 대학이 갈리는 수능에서는 확실히 답을 구하지 못한 문제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무엇보다 문법에 자신감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 때, 제가 선택한 것이 문법의 끝이었습니다. 저는 개념이 정리된 문법교재 1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거기에 기출문제로 최대한 평가원의 스타일을 익힌다면 문법 문제가 어려울 수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알게된 문법의 끝에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법 내용이 총망라 되어있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도 개념에 맞게 수록 되어있어서 개념과 기출 모두 잡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법의 끝의 가장 큰 장점은 책에 어떤 개념이 중요한지 표시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모든 개념을 꼼꼼히 봤지만 중요한 부분에 더욱 집중하여 굉장히 효율적인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책 맨 앞쪽에 있는 목차를 통해 항상 제가 어떤 큰 줄기를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해가면서 막연히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정말 제 문법지식이 단단해짐을 느꼈습니다.

저는 감으로 문법문제를 푸는 게 정말 싫었기 때문에 문법 개념을 질리도록 봤습니다. 문법의 끝으로 문법 개념을 계속 봤는데 개념의 핵심은 잘 잡혀있고 군더더기가 없어서 N회독을 할수록 오히려 시간이 절약됐습니다. 유명 강사의 문법 강의를 듣고 온갖 사설, 교육청의 문법문제를 푸는 것보다 개념서 한 권을 통하여 문법 개념에 익숙해지니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부담도 덜었습니다. 제가 14, 15 수능 때는 항상 시간이 부족했는데요. 16 수능 때는 비문학을 풀기 전에 문법부분에서 못 풀고 넘어간 부분이 없고 감으로 풀기보다는 근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서 마음도 편하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수능은 시간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만큼은 단권화된 책으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단권화된 책으로 문법의 끝을 선택했고, 후회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 정 태 희 |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2016학번

2학년 때까지는 별다른 국어 문법을 준비하지 않다가, 3학년에 올라오면서 자꾸 문법 분야에서 틀려서 국어 문법 준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문법에서는 개념을 숙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가장 꼼꼼하게 정리된 책을 찾던 중, 문법의 끝을 추천 받아서 이 책으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문법은 혼자 공부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해서 듣성듣성 하게 되는데, 선생님께서 ‘문법의 끝’에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개념들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 주신 덕에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중간 중간 주석으로 달려 있는 팁이나 보충 설명들로 세부적인 내용이나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하는 부분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문법 개념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특히 주석이 구어체로 옆에서 설명해 주듯이 쓰여 있어서 심화된 내용을 수월하게 읽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예문이나 기출 문제도 다양하게 수록되어 있어서 문법의 끝으로 공부하면서 익힌 개념을 적용하는 것까지 무리 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록된 문제를 개념 공부할 때 풀지 않고, 나중에 국어 기출을 문제집으로 통으로 풀 때 문법 분야에서 틀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문법의 끝에 정리된 해당 개념을 복습하고 나서 풀어 보는 방식으로 공부했는데, 이렇게 문법의 끝을 국어 문법 기본서로 활용하면서 시간도 많이 절약하고 개념도 꼼꼼히 다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모의고사나 시험을 보기 전에는 문법 공부가 제일 효율적인 듯해서 스스로 핵심정리를 했던 페이지를 쪽 훑어보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문법의 끝으로 공부하면서 문법 분야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박 주 환 | 경희대 물리학과 2016학번

국어 a형 응시 독학 재수생이고, 다 맞은 분들에 비하면 미진합니다만 96점으로 1등급을 받은 학생입니다. 이번 독학재수 중에서도 6,9월은 1등급이 아니었으나 수능에서는 감사하게도 문법 덕에 1이 나왔네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법의 끝이 맞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나오는 설명이 지금은 이해가 되네요. 개념이 도출된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포인트였습니다. 이번 수능에서도 결국에는 문법 두 문제를 고민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암기한 정의와 과정으로 선택을 하니 맞출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 문법이라면 치를 떨었고, 고3 내내 굉장히 혼란을 겪었습니다. 근거 없는 감에 의존한 답 선택은 평가원 시험 내내 등급을 떨어뜨리는 원인 이었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서 언제나 문법을 파고 질문하고 해도 문제를 보면 틀리거나 근거를 못 찾고 까먹는 저를 보면 너무나도 참담 했었죠. 작년 수능 화작문에서 탈탈 털리고 나서 3등급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해 독하게 독학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해도 안 된 문법이 한이라 ebs를 집어던지고 결국 문법 전문 교재를 구매하기에 이르렀는데 그것이 '문법의 끝' 이었습니다.

5월 구입을 해서 6월 모평 3일 전까지 계획을 짜고 문법의 끝을 공부했습니다. (재미없는 것은) 기억력이 오래 가지 못해서 '시험 전에 반드시 훑어보자'라는 생각으로 공부했습니다. 일단 몰라도 그날 문법 공부 한 것을 정리하면서 따라갔고 또 9월 전에 한 번 더 반복하구요. 문법의 끝 교재에 여백이 굉장히 많아서 떠올리면서 다시 정리하기에 좋았습니다.

9월 이후에는 자신 없고 고3 때에도 해매었던 부분들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정의를 아예 암기하고, 강의와 교재에 기록된 예시들을 적어서 암기한 정의에 맞추어 머릿속으로 뜯어서 다시 조립해보고 하는 작업을 반복했습니다. 또한 책에 다 있는 기출 문제는 끊임없이 반복하구요. 수능 하루 전에는 기출을 뽑아서 문법 문제에 정의 적고 분석 까지 마쳤습니다.

문법의 끝의 장점이라면 수업으로 들어야 할 것을 책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문법을 해도 해도 안됐던 이유는 단편적으로 공부하고 정리와 근거 없이 암기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용이 되지 않죠. 문법의 끝에서는 개념이 도출된 원리와 포인트가 구어체로 정리되어 있어 수업을 안 듣고도 쉬운 이해와 암기를 가능하게 하고, 그로 인해 수능에서도 적용할 수 있었던 것 같네요.

## 김 지 성 | 중앙대 기계공학부 2016학번

고등학생 시절 국어 공부에 손을 놓다가 수능에서 크게 당하고는 다시 수능을 준비하면서 여러 인터넷 강의와 교재를 접했습니다. 그 중 가장 치중한 부분은 문법이었습니다. 국어란 과목에서 제일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타 강사의 국문법 강의를 들었지만, 궁금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생길 때마다 그때마다 질문을 올리고 답변을 기다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상반기에 강의를 듣다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쌓아뒀던 문법체계가 점점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문법 참고서를 사기로 마음먹던 중 선생님께서 진행하신 이벤트를 통해 <문법의 끝>을 접했습니다. 덕분에 수능때까지의 문법에 대해서는 별 걱정 없이 끝냈습니다. <문법의 끝>의 장점은 단언컨대, '문법 개념 구조도'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게 자신이 궁금한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고나 할까요, 세분화된 분류가 효율적인 문법 학습을 도와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책 전체를 달달 암기한다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그 부분을 신속하게 찾아 펼칠 수 있는 문법의 '바이블'같은 참고서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문법의 끝>이 그 역할을 잘 해준 것 같습니다. 특히 저를 가장 머리 아프게 했던 '사이시옷 현상'과 '높임법'에 대해서는 정말 십 수번이 넘게 책을 펼치면서 시험장에 들어서기 전에 완벽히 정복했습니다.

책의 효율적 활용법을 알려드리자면, 국어 문법 기출교재와 함께 활용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출문제를 풀고 채점을 한 뒤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보면 분명 다시 봐도 잘 모르는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이때, 해당 문제의 상황에서만 설명하는 단편적인 해설을 살피는 것보다는 <문법의 끝>을 먼저 펼쳐서 해당 문제가 다루는 문법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는 것이 비슷한 다른 문제를 틀리는 것을 예방해 주었습니다.

2016학년도 국어 100점이 <문법의 끝>으로만 이루어졌다고 할 순 없지만, 적어도 시험장에서 문법문제를 풀 때의 정확함과 신속함은 <문법의 끝> 덕분이라고 자신합니다.

## 최 성 모 | 건국대학교 2015학번

A형 응시했고 2013, 2014년엔 문법의 끝 교재를 시험막바지에 알아서 사용하지 못했고 시험을 봐서 그런지 문법을 14 15수능 모두1개씩 틀렸었는데요. 올해 시험에서 반수생활동안 문법의 끝과 꼼꼼하게 공부해서 올해 국어영역 중 까다로운 파트였다던 문법을 여유 있게 풀고 다 맞아서 96점 1등급 받은 반수생입니다. ^^ 언어에서 국어로 바뀌고 나서 문법이란 것을 처음엔 굉장히 딱딱하고 암기해서 답하는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했었고 그렇게 해온 결과 모의평가에서는 문제가 없었지만 두 번의 수능에서 문법부분에서 시간소요가 굉장히 심했고 문법의 영향을 받아 두 번의 국어시험 모두 2등급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능은 짧은 시간이지만 선생님 교재와 강의를 함께 활용하면서 문법을 풀어나갈 때 보기와 문제의 정보에 맞춰서 해석해내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론 문법의 답답했던 부분이 해결됐고 문법을 편하게 풀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국어는 ebs는 따로 참고하지 않고 선생님의 교재의 기출문제와 내용과 기출문제 풀이 중 다시 풀어보는 문제들로만 문법 문제 풀이방법을 체화시켰는데요. 선생님이 강의중이나 문법의 끝 교재에 주석으로 달아주신 ebs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내용이나 혹시나 궁금해 하거나 애매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명확하게 짚어주고 가셔서 따로 궁금한 점을 찾아볼 것이 거의 없었던 것이 장점인 교재였던 것 같습니다:)

교재 회독 수는 강의와 함께 1회독 후 복습하여 2회독 했구요 그 이후에는 따로 교재를 읽어보기보단 기출문제를 푸는 도중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개념을 교재로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회독수를 늘렸습니다. 강의까지 포함한다면 순수 책 읽는 횟수만 해도 3번이 넘기 때문에 그 이후엔 약점을 보완하는 식으로 부족한 부분만 확인해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ㅋㅋ

교재로 독학을 해도 부족함 없이 좋은 것 같고 강의를 참고한다면 그 해에 변화되어 주목해야 할 만한 파트까지도 챙겨갈 수 있어 더욱 좋은 교재였던 것 같습니다.

교재를 고르는 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학생입장을 고려해서 책을 쓰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인데요. 문법의 끝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인지 사용하면서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쓰게 되실 많은 분들도 도움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 2015 문법의 끝으로 공부한

# ‘2015 수능 1등급 검토진’의 교재 후기

서 승 연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15학번

많은 학생들처럼 저도 고3 생활을 시작할 때 가장 걱정되었던 부분이 바로 생소한 문법 파트였습니다. 그 때 저의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주신 것이 바로 유현주 선생님과 문법의 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문법의 끝은 수능 문제를 풀기 위해 필요한 모든 문법을 1권에 정리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문법의 끝의 각 단원은 크게 단원의 내용 구조도, 문법 내용, 연습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단원의 내용 구조도는 복잡한 문법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구조화하였기에 이해를 크게 돕고 복습을 용이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문법 내용 부분은 쉽고 꼼꼼한 설명과 함께 문법별로 중요도가 그림과 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편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습문제 부분에는 지난 기출문제 중 해당 단원의 내용을 담은 문제들이 실려 있어서 공부한 문법이 실제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문법을 배울 때 유현주 선생님께서 문법은 한 번 잘 잡아놓으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기초부터 문제풀이까지 담겨있는 문법의 끝은 1권으로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모의고사 분석 등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부분을 복습하기 편리해서 수험생활 중 손이 가장 많이 갔던 책 중 하나인 문법의 끝은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누구에게나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문법의 끝으로 공부하셔서 꼭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최 세 현 | 강릉원주대학교 치의예과 2015학번

안녕하세요 ^^ 15학년도에 문법의 끝으로 문법 공부를 했었던 학생입니다. 14년에 이 책으로 열공하면서 서평을 쓰는 기회를 얻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네요

항상 문법이라고 하면 아 그거 들어봤는데 뭐였지?가 다였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전히 제대로 공부하고 싶었고 좋은 책을 찾던 중 문법의 끝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법의 끝은 정말 제목그대로 문법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 너무 세세한거 아닌가 싶어도 세세함 덕분에 헛갈리는 것도 줄고 예문들을 보면서 더 쉽게 암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개념도를 보며 먼저 문법에 대한 큰 틀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겨울방학동안 문법을 다지고 14년도에 본 모의고사 중에는 문법을 한 문제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마스터 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시간과의 싸움인 고3동안 따로 단권화 할 필요도 없고 궁금할 때마다 사전처럼 뒤져볼 수 있는 책 덕이었습니다.

이 책을 보시는 분들도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않고 모두 마스터하여 문법의 끝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제 경우는 일단 문법개념도라는 큰 틀을 암기하고 세세한 부분들을 암기하며 헛갈리는 부분을 잡았습니다. 문법의 큰 틀을 모두 암기한 후 그 개념도를 직접 마인드맵 형식으로 그려본 뒤 제가 제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예문들은 암기를 더 쉽게 해주고 개념도는 큰 틀을 잡아 주기 때문에 책 속에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것이 개념도와 예문들이었습니다.

## 조 용 범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015학번

문법의 끝은 단권화하기에 최고의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수 준비 중 학원 수업과 작년 수능 대비해서 공부했던 것을 다시 준비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법의 끝을 접하게 되었는데, 문법의 끝에서 교과과정과 2013 EBS 교재에 있는 모든 문법 내용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문법의 경우 정말 자주 빈출되는 주요 내용이 있고 알아두거나 한번쯤 접해두면 좋을만한 내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법의 끝은 주요 문법 개념에 대해서는 따로 표시가 돼 있어서 주된 내용과 부수적 내용을 잘 구별할 수 있었고, 부수적 내용도 자세히 설명이 돼 있어서 문법에 대해 배경지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법의 끝의 장점은 평가원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BS 교재 등 에서도 문법 기출문제는 접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모든 문제를 풀어보지 못하면 불안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문법의 끝은 비문학 언어 지문과 문제 포함 7차 평가원 모든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어서 수능 준비에 불안감을 한층 덜어주었습니다

## 여 혁 기 | 조선대학교 치의예과 2015학번

문법의 끝은 학생들이 문법에 접근하기 가장 좋도록 노력하여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이 학생들에게 고난인 만큼 그 학생들의 마음을 헤아려 만드신 느낌이 물씬 난다는 것을 공부할수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연계교재나 다른 책과 비교하여 특히 좋다고 느낀 부분은 문법 구조도로써 학생들이 국어문법의 위계질서를 한눈에 머리에 넣기 좋게 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많은 문법 교재들을 보았다고 자부하지만 그중 저에게 음운론이 정리되었다라고 느끼게 해준 유일한 책은 문법의 끝뿐입니다. 앞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후배님들은 적어도 음운론파트만이라도 꼭 보기를 권합니다.

## 이 지 수 | 경희대학교 한의예과 2015학번

저는 1교시 국어를 무조건 안정적으로 잡고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국어공부를 꾸준히 하였습니다. 국어 시험을 원하는 만큼 안정적으로 이끌지 못한 모의고사 일수록 뒷 과목 점수들이 엉망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기출문제를 풀 때면 항상 문법 부분에서 약점이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수능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문법 개념서를 충분히 봐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문법의 끝' 책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을 때, 저는 반수였기 때문에 국어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차곡차곡 공부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했고, 또 어느 정도 기틀이 다져진 상태에서 꼭 그렇게 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문법의 끝은 교과서에 충실하면서 세세하게 인덱스가 붙여져 있다는 것과 짜임새가 구체적이며 구조적이라는 점에서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책입니다. 저는 기출문제에서 약점이 발견된 분야를 목차에서 찾아 내용 공부하는 용도로 이 책을 활용하였고, 정확하고 세세하게 분류되어 있는 개념들 덕분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확하게 모르는 곳을 짚어내는 능력 또한 기를 수 있었습니다. 매번 첫 부분만 열심히 공부했던 다른 교재들과는 달리 구체화된 목차 구성 덕분에 끝까지 책을 붙잡고 있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책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기출문제 풀이 후 오개념을 정확하게 골라내서 올바른 개념을 다시 넣는데 가장 좋은 교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힘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





### 이 동 현 | 대구한의대학교 한의예과 2015학번

〈문법의 끝〉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상당히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잘 잡는, 선생님의 노하우가 그대로 담겨 있는 교재로, 시중에 날림으로 제작되는 책들과는 달리 문법의 중심부를 겨냥해 수능에 최적화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과중한 학습을 요구하기보다는 필수불가결한 내용들 위주로 '문법의 끝'을 향해 소신 있게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노련한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신다면 분명 더 수월한 방법으로 보다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들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겠지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생들을 위하시는 선생님의 정성입니다. 학생들의 초점에 맞춘 간결한 개념, 날카로우면서도 친절한 해설 그리고 활발한 피드백을 통한 친근한 학습은 고된 수험 생활 속에서 학생들의 단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교재! 과감하게 추천합니다.

### 권 태 균 |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계열 2015학번

2015학년도 수능대비 「문법의 끝」 과 유현주 선생님 강의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렇게 2016학년도 수능대비 「문법의 끝」 을 검토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법의 끝」 이 다른 문법교재들과 차별화된 부분은, 2005학년도부터의 모든 평가원 모의평가 및 수능 문법 기출문제를 전부 수록하였다는 점입니다. 타 문법교재는 물론, 유형별 국어 기출문제집 중 이렇게까지 기출문제를 많이 수록한 문제집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이는 제가 수능을 준비한 2014년 기준으로, 2015년에 어떠한 교재가 나왔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또, 개념별로 중요도가 표시되어 있어서 어느 개념이 중요한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문법의 끝」 의 장점입니다. 국어과의 「독서와 문법 I」 과 「독서와 문법 II」 에서 다루는 문법 개념의 양이 매우 방대한데, 처음 접하는 수험생이라면 공부할 양이 주는 압박감 때문에 문법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법의 끝」 에 개념별로 표시된 중요도를 확인해서 제일 중요한 별 다섯 개의 개념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어서 매우 효율적으로 문법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문법의 끝」 은 국어 문법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보시는 수험생 여러분들 모두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자신이 목표하던 것 이상의 결과를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 은 샘 |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 2015학번

먼저 "문법의 끝"을 통해 선생님께 문법공부에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이번엔 검토진으로서 수험생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수능이 바뀌게 되면서 문법의 비중이 크게 늘고, 문법적 지식을 요하는 문제들이 늘어나면서 문법은 국어영역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문법은 감이 아닙니다. 문법은 제대로 한번만 공부해도 다 맞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렇다고 바쁜 수험기간중 방대한 문법 파트를 전부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따로 있고 매년 그 부분이 시험문제로 출제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문법 개념과 기출문제가 체계적으로 섞인 이 교재와 강의를 선택했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문법의 끝"은 개념과 기출이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효율적인 구조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흐름에 따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활용할 때에는 '문법 개념 구조도'를 꼭 인지하고 개념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조도는 문법 공부에 있어 이정표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개념을 공부하기 전, 후에 공부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습득한 개념을 바로 기출문제에 적용하여 평가원이 문법 개념을 어떤 방식으로 시험에 출제하는 지를 꼭 알기를 바랍니다.

## 윤 주 호 |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계열 2015학번

문법의 끝을 만나기 전까지 전 문법의 문자도 몰랐었습니다. 개념도 부족했었고 문제 푸는 스킬도 부족해서 매번 모의고사를 치거나 문제를 풀 때마다 깔끔하게 푸는 게 아니라 감에 의존하고 확실하게 답을 고르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보고 또 여타 다른 책으로 공부했는데 정리가 잘 안됐었습니다. 그러다 만나게 된 책이 문법의 끝이었습니다. 오르비를 보다가 새로운 문법책이 나와서 '일단 한번 사서 공부해봐야겠다'라고 마음먹고 책을 구입했습니다. 처음엔 기대감 없이 책을 구입했었으나 그런데 기대를 비웃듯 책 안에 개념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기출 문제 또한 그 파트에 맞춰서 수록되어 있어서 공부하기 편했습니다. 또한 해설도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읽기 편하게 되어있고 근거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서 혼자 공부하기 편했습니다. 그렇게 문법의 끝을 수능 끝날 때까지 정리하고 공부한 결과 수능에서 문법을 다 맞게 되었고 국어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원하는 대학교에도 합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법에 자신이 없으시거나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사셔서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확실하게 문법을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 허 동 범 |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2015학번

저는 이 교재가 다른 문법 교재보다 좋았던 이유는 설명이 자세하면서도 수능이란 테두리 안에 있고 문제들은 모두 기출문제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수능에서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법 개념이 설명이 매우 자세하게 되어있고 문법 개념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 수 있어서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지 기억에 더 오래 남았던 것 같고 수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중요하게,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개념은 가볍게 공부할 수 있어서 공부하기도 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능 문법에 모든 개념들이 이 책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을 풀다 기억이 가물가물하는 부분은 책을 다시 펴서 그 개념을 다시 복습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리 스펙 트

언어영역이 국어영역으로 바뀐 지 어언 2016학년도 대수능이면 3년차입니다. 제일 큰 변화는 문법영역의 비중 증가입니다. 개인적으로 언어영역이 있을 때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접했습니다. 언어영역 시절, 단독 문법 문제가 2문제인 시절에는 문법영역 비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어 영역이 되며 그 비중이 증가했고, 이에 더불어 문법 문제는 2014수능에 비해서 2015수능이 더 정교화 되고,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대수능이 어떻게 나오는 지는 아무도 현 시점에서는 모릅니다만, 대비를 해 두는 것과 안 해두는 것의 차이점은 매우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수능은 정규 교과 과정 내에서 출제를 합니다. 대학교의 국어국문학과 전공과정수준의 문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부 고등학교 정규 과정 내의 내용을 바탕으로 응용하여 출제를 합니다. 다시 말해, 수험생 여러분들은 정규 교과 과정에서 학습한 능력을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해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문법의 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여러 번 응시한 본인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정규 교과 과정에 대한 분석이 깔끔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문법의 기본 개념과, 교재에 제시된 분석사항을 낱알이 읽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개념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응용력 또한 길러지게 될 것입니다. 교재에 제시된 기출문제에 대한 풀이 또한 수능을 여러 번 경험한 필자마저 '현역 시절에 이걸 배웠다면 국어 문법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었을 텐데' 라는 안타까움을 남길 정도로 국어 문법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이 "문법의 끝"을 선택하여 꼼꼼하게 책을 학습한다면,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은 국어영역 중 문법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을 선택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00점을 기원합니다.



## 2014 문법의 끝으로 공부한

# ‘2014 수능 1등급 검토진’의 교재 후기

### 유 범 정 |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2014학번

우선 작년 『문법의 끝』 교재를 통해 문법 공부에 있어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검토진으로서 교재를 다시 접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책은 시중에 있는 어느 문법책보다도 풍부한 설명이 담겨 있어 책을 공부하며 문법 개념의 기초부터 탄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책에는 평가원, 교육청 출제의 여러 문제들이 실려 있어서 실전 문제풀이 감각까지 놓치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문법 이론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죠.

문법 파트 자체가 워낙 내용이 방대하며 또 어렵기도해서 저도 작년에 골머리를 앓았었습니다. 하지만 『문법의 끝』을 만남으로써 이러한 고민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책에는 다른 시중 교재가 어렵게 설명하는 문법 사항까지 이해하기 쉽게 서술되어 있었고, 애매한 사항에 대한 풍부한 설명이 뒷받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문법 단권화 책으로 사용했고 이외의 문법서는 보지 않으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문법 서적을 두루 보기도 하는 이 책을 몇 번이고 반복해 보면서 저는 문법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시간 투자 대비 높은 효율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6, 9월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서 문법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얻게 된 시간들을 잘 활용해 6월, 9월, 수능 시험 모두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사용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도 문법을 확실히 끝내 수능 1등급이 되길 바랍니다. ^^

### 최 종 진 |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014학번

저는 현역시절 만년3등급 학생이었습니다. 쉬어나 어려우나 항상 변함없던 3등급의 점수가 저를 재수로 이끌었습니다. 저는 기출을 풀 때 전에 풀었던 기억에 의지하여 근거 찾는 연습은커녕 답만 적고 해설 읽는 방법처럼 무의미한 공부법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현역으로 대학 간 친구 중에 저희 학교 특강오신 선생님이었던 유현주 선생님을 추천받아서 『문법의 끝』을 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책을 공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때부터 제가 생각해 온 것은 문법은 그냥 감이지, 그냥 그때그때 푸는 거지 하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법의 끝』을 접하고 나서 이러한 생각이 변했습니다. 풍부한 문법해설과 핵심적인 내용만 담겨 있는 『문법의 끝』은 2014수능을 대비하기에 딱 좋은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문법에 자신이 생기니 뒷부분의 독서, 문학도 자신감 있게 풀게 되었습니다.

『문법의 끝』은 단순히 문법지식만 담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능 문법을 대비해야 하는지 척도를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또, 올해 교재를 검토하며 느낀 점은 이전 교재는 자잘한 부분까지 너무 자세하게 다루신 경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수능에서 묻고자하는 핵심을 정확하게 간추리고 중요도를 표시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작년에 공부할 때 이 부분이 따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 모두 다 중요하게 봐야하는 건가하고 막막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년 A·B형으로 나누어지면서 다른 문법 기출문제 해설서에서 안 다루는 비문학 언어지문을 다룸으로써 문법 지식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제를 편성한 부분도 아주 좋은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이 바뀌면서 이전 문법 문제들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고난이도 문법이 어느 부분에서 출제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와 해설의 적절성도 지나칠 정도로 자세해서 개념이 부족한 학생들이 기본부터 심화까지 잡기에 매우 좋은 것 같아요!!

## 이 재 호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계열 2014학번

교육과정의 개편되면서 수능에서 문법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비록 각 부분별로 비중은 다를지라도 문법 문제를 다 맞히기 위해서는 잘 출제되는 부분만이 아닌 전체적으로 훑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은 교육과정상의 모든 내용을 공부해볼 수 있게 구성되었으므로 특히 처음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개념을 잡는데 매우 유용하고 이미 공부해보았던 학생일지라도 다시 한 번 모든 부분을 복습할 수 있기 때문에 두고두고 참고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교재입니다.

## 김 종 우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2014학번

일단 제가 좋았던 점은 교재에 수능에 정말로 필요한 내용만 담겨 있으면서도 중요한 부분이 자세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점은 문법 규정을 함께 실어 놓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수능에는 보통 문법규정과 예시를 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념만 달달 외운다고 문제가 잘 풀리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감사합니다. 7차 교육과정에 있는 문제를 전부 다 탑재해주신 덕분에 다른 문법 기출문제를 살 필요 없이 복습만 잘 해주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장 해 경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2014학번

다른 교재들을 보면, 이론중심교재인 경우에는 기출문제와 문제들이 빈약하고 기출문제 중심교재인 경우에는 관련학습 내용이 빈약해서 문제를 풀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문법의 끝』은 기출과 이론, 두 가지가 모두 알차고 충실해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을 활용할 때에는 관련 단원에 대한 이론을 충분히 학습한 후에, 가장 먼저, 그 단원에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수능기출문제를 풀어서 그 단원에서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익히고, 그 다음 관련기출문제들을 쭉쭉 풀어보면 그 단원에 대한 대비는 확실히 되리라 생각합니다.

## 정 경 윤 | 서울대학교 전기정보공학부 2014학번

시중에 잘 볼 수 없는 '문법 기출문제 모음집'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교재라서 국어 A형 상위권을 노리는 학생이라면 거의 필수품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유로 강좌와 교재를 구입했는데, 실제로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레이아웃,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서 가독하기에 좋아 매우 만족했습니다.

## 임 성 원 | 경희대학교 약과학과 2014학번

제가 문법을 처음 공부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교과서나 시중의 교재들에서 '왜 그럴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걸까?'라는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없어 무작정 외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문법의 끝』은 이러한 가려운 질문들을 속 시원히 긁어 줄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문법을 단순히 외워서가 아닌 이해를 통해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이 교재의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가 활용했던 방법인데요. 첫 번째로 이 책을 볼 때에는 기본 개념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또 처음엔 문제들을 풀되 책에 답을 체크하지 말고 틀린 문제에만 틀렸다는 표시를 해주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책을 볼 땐 책에다 문제를 풀며 오답인 선지의 오답인 근거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헛갈리는 개념이나 암기가 필요한 부분에는 따로 표시를 해두신 다음 모의고사와 같은 시험 전날 내가 틀렸던 문제와 표시를 해둔 개념부분만 따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 오 성 원 | 연세대학교 생화학과 2014학번

사실 문·이과 공통으로 국어라는 과목은 특히 그 중에서도 문법이라는 과목은 수험생 입장에서 참 애매합니다. 많은 공부시간을 투자해서 하자니 과연 이게 수능점수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안하자니 찝찝하고... 이런 고민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책이 『문법의 끝』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법의 끝』은 정확하게 수능에 필요한 개념들만을 빠짐없이 정리해놨고 또한 개념들 바로 옆에 수능에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나올 것인지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공부하면서 들 수 있는 의문들(‘이 개념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는가’ ‘필요하다면 얼마나?’와 같은 문제)을 해소시켜주고 믿음을 가지고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개념 공부하실 때 무작정하지 마시고 시험에 머가 나왔는지 어떻게 나올 것인지가 나와 있는 작은 귀퉁이도 빠뜨리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뒷부분에서 문제를 푸실 때에도 한 문제 한 문제 전부 기출문제들이니 꼼꼼하게 수능시험이라 생각하고 시험장에서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어떻게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풀 것인지 생각하면서 풀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설들은 필요한 부분들만 또한 빠져서는 안 되는 포인트들만 딱 집어서 구성 되어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고 해설의 사고방식대로 풀었는지를 비교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평이든 수능이든 시험장에서 문법 푸실 때는 자신감을 갖고 맘 줄이지 않고 맘 편히 풀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손 민 호 | 경북\_대영고등학교 교사

2013년 한 해 대영고 2학년 학생들과 함께 수업한 교재를 직접 검토할 수 있어서 매우 보람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에 근거한 내용 구성과 수준에 맞는 개념 설명이 함께 되어 있어, 학생들의 문법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 힘내십시오.

#### 엄 수 현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 2014학번

#### 이 용 주 | 원광대학교 치의예과 2014학번